

로마군 여정따라...대혁명 자취따라... 프랑스 역사 속을 걷다



무프타르 가 초입.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 하나인 이 길은 자동차가 하나 지나갈 듯한 좁은 길로 젊은이들이 많고, 시장에서 항상 활기를 띤다.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시테 섬과 뒷편 생 루이 섬을 잇는 생 루이 교의 뮤지션들. 신심이 깊었던 루이 9세 왕이 기도를 하러 들렀던 이 섬에 후세들은 그의 이름을 붙였다.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5) 파리와 길

220만 명이 사는 파리 시내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300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파리는 보행자의 도시이다. 일주일에 두 번 서는 동네 장터의 상인들에게는 생활의 공간이고, 유모차를 앞세워 한가로이 걷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산책의 공간이며, 피켓을 들고 대로를 행진하는 시위대에겐 분노를 표출하는 공간이 된다.

파리 길의 숫자는 13세기 309개에서 루이 15세 치하의 18세기에 789개로 불어나고, 현재는 6천여개에 이른다. 도시의 경계가 넓어질수록 길의 수도 많아졌다. 길의 번지수를 매기는 방식은 1805년 정해졌다. 센스 강과 평행으로 난 길은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번지수가 점점 커지고, 강과 직각을 이루는 길의 번지수는 센스 강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먼 곳에서 끝난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길은 '뤼(rue)'라 하고, 대로로 '아브뉴(avenue)' 또는 '볼르바르(boulevard)'라 하는데 기준은 길의 옆에 가로수가 있는지 여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준은 모호해졌고 용어들은 고유명사로 굳었다. 가로수가 없는 '아브뉴'가 있고, '볼르바르'보다 넓은 '뤼'들을 볼 수 있는 이유다.

역사 굴곡 아로새긴 문화유적 길 모퉁이 돌 때마다 고스란히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천년 넘게 프랑스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는 파리의 길에는 그 숫자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 길과 연관이 있는 인물 또는 지역, 사물 등이 이름으로 등장한다. 파리의 길에 얽힌 역사를 통해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거기에서 파리를 점령했던 로마인들, 나라를 호령했던 중세의 왕들, 현대 프랑스의 기틀을 마련한 정치가들을 만날 수 있다. 방문자들에게 파리의 거리는 발견의 공간이다.

▲로마인들이 걸었던 길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길로 라틴 구역의 무프타르 가를 꼽는다. 라틴 구역은 센스 강 좌안에 위치한 생 쾨비에르 언덕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13세기에 설립된 소르본느 대학이 있어 18세기 후반까지도 라틴어가 공식언어로 통용되던 지역이었다. 1세기 경 로마인들이 파리를 점령한 뒤 극장과 공중 목욕탕 등을 건설하고 시테 섬을 벗어나 도시를 넓혔던 지역이기도 하다. 로마인들은 시테 섬에서 풍텐블로 숲으로 갈 때 무프타르 가를 이용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절, 파리와 로마를 잇는 길이었다.

지금의 무프타르 가는 대학가에서 멀지 않아서인지 젊은이들이 많고, 오래된 식당이나 치즈 가게, 과일 가게 등이 있어 항상 활기를 띠는 곳이다. 길의 초입인 작은 광장은 선술집과 카페들로 둘러싸여 밤늦게 까지 활기를 이어간다. 20세기 초 작가 조르주 뒤마엥은 소설에서 "도시의 가장 기쁜 음식의 동맥이 거칠고 혼잡하고 떠들썩한 활판을 지나는 것처럼, 무프타르 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묘사했다.

파리를 점령한 로마인들이 복진을 위해 이용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길은 생-드니 가이다. 파리 최초의 주교인 드니 성인에게 헌정된 이 길은 센스 강과 평행을 이루는 리블리 대로에서 생-드니에서 끝난다. 생-드니 문은 루이 14세 시절의 성곽터로 19세기 도시 정비를 통해 성의 자리엔 대로가 들어섰고, 문은 대로 가운데 남겨졌다. 현재의 생-드니 가는 성인용품 가게와 사탕가게 등이 자리하고 있다.

▲강한 프랑스 왕국의 길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존엄왕' 필립 오귀스트를 기리는 필립 오귀스트 대로는 루브르나 시테 섬 등 고궁이 몰려 있는 파리 시내에 있지 않고, 동쪽의 나시옹 광장에서 북쪽의 페르 라셰즈 묘지까지 뻗어간다. 길이 시작되는 광장의 한 켠에 19세기 중반 세워진 4m 짜리 거대한 탑 위의 '존엄왕' 동상에서 길의 존재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필립 오귀스트는 파리를 프랑스의 수도로 정착시킨 이로도 유명한데, 그가 12세기에 세운 3m 두께에 9m 높이의 성곽은 규모만으로도 그의 위용을 가늠케 한다. 성곽의 총 길이는 5km, 도시 면적은 253ha였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었던 영국 왕과 노르망디 공작의 공격으로부터 수도 파리를 방어하기 위해 제일 취약한 지점은 센스 강변의 서쪽이었다. 그곳에 집중적으로 높은 탑과 두터운 성벽을 세웠는데,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 자리다. 지금도 클로비스 가, 루브르 가, 장-자크-루소 가, 탕플 가, 에티엔 마르셀 가 등 시내 곳곳에 필립 오귀스트 성곽의 흔적들이 지하와 지상에 남아있다.

나시옹 광장의 필립 오귀스트 동상 맞은 편에는 그의 손자이자 프랑스의 왕 중 유일하게 가톨릭 성인의 반열에 오른 '성왕(聖王)' 루이 9세의 동상이 있다. 루이 9세의 이름을 딴 생 루이 가는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시테 섬 옆의 생 루이 섬 안에 있다. 노트르담 성당의 참사원들이 살고 있어 노트르담 섬으로 불리던 이 섬은 1725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불린다. 신심이 두터워 제 8차 십자군 원정에도 동행했던 생 루이 왕이 종종 이 섬에 와 기도를 했다는 전설 때문이다.

▲공화국의 길

혁명의 상징인 바스티유 광장에서 나시옹 광장으로 가는 길은 2km 남짓의 포부르 생 앙투안 가. '포부르(faubourg)'는 성곽 또는 도시의 경계 등을 뜻하는데, 성곽 주변의 마을 군락을 주로 지칭한다. 지명에 이 단어가 나온다면 역사적으로 성의 경계였거나, 경계에 주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생 앙투안'이라는 이름은 길의 옆에 있던 수도원에서 왔다. 13세기에 설립된 이 수도원은 현재 병원의

■ 파리의 길	
도로 연장	: 1700 km
도로 면적	: 26.5 km ² (도시 면적의 4분의 1)
도로 개수	: 6003개
가장 긴 길	: 보지라르 가 (4.36 km)
가장 짧은 길	: 데그레 가 (5.75 m)
가장 넓은 길	: 포슈 대로 (120 m)
가장 좁은 길	: 샤-까-페슈 가 (1.80 m)

(자료=파리 시청)

로 사용되고 있다. 포부르 생 앙투안 가는 13세기를 전후해 조성된 파리 외곽의 마을이다. 주변 로케트 가, 사르느 가, 사랑롱 가 등에 가구상, 목공소, 구두 공장, 철공소 등이 모여 있고, 노동자와 수많은 상인들이 있어 파리 경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곳이었다. 인구밀도가 파리에서 가장 높은 동네 중 하나였다.

대혁명이 시작된 1789년의 4월 이 길에서 벌어진 사건에 주목할 차례다. 혁명의 촉매가 된 삼부회가 소집되기 일주일 전인 4월 28일, 성난 노동자들이 파리시청 광장까지 진출해 제지 공장 사장이 레베이용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레베이용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명 레베이용 사건에서 진압군에 의해 시민 노동자 300여명이 사망했고, 수천명이 부상당했다.

3개월 후인 7월14일 바스티유 감옥 함락 당시 포부르 생 앙투안 가의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지리적인 것 뿐만이 아니었다. 오랜 혁명 기간 동안 이 길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그치지 않았는데 길의 넓이가 바스티유 광장으로 갈수록 좁아져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었다. 레베이용 제지 공장과 가까웠던 포부르 생 앙투안 가의 184번지에는 우물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레베이용 사건 당시 시민과 노동자들이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 집결했던 곳이다. '문화국' 프랑스의 텃밭과도 같은 길이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라틴 지역의 클로비스 가에 남아 있는 필립 오귀스트의 성벽터. 12세기에 수도 파리를 방어할 목적으로 지었다.



파리 시내 마레 지구에 남아 있는 필립 오귀스트의 성벽터. 12세기에 수도 파리를 방어할 목적으로 지었다.